

40장.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

40장에서는 감옥에 갇힌 요셉이 바로의 고위 관리 두 명의 꿈을 해석해 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선 것은 30세이고 지금은 그 2년 전이니까 28세이다. 그는 17세에 팔려와서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종살이하였다. 이것은 요셉이 바로의 앞에 서기 위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는데(45:7-8; 50:20),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40장의 꿈 이야기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1. 두 관원장의 죄와 요셉의 시중 (40:1-4)

‘관원장’이란 많은 관리들의 우두머리인데, 술 맡은 관원장은 좋은 술을 공급할 뿐 아니라 술에 독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먼저 마시는 직분이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음식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직책이었다. 두 직책은 모두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고, 왕의 생명과 긴밀히 연결된 임무였기 때문에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임명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참조. 느 1:11).

그러한 두 관리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시위대장은 두 사람을 수종할 임무를 요셉에게 맡겼다. 39장에서는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였는데, 이번에는 갇힌 죄수의 지위 때문인지 시위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시켰다. 비록 시위대장이 요셉에게 두 사람을 섬기도록 하였지만, 요셉이 자유의 몸으로 그 일을 한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었고(3, 15절), 죄수의 신분으로서 두 관리의 시중을 들었다. 또한 요셉은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는 자였다. 따라서 일상적으로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좋은 봉사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문제에 빠져 있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시면서 그의 짐을 져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옥에 갇힌 자의 얼굴을 살필 줄 알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말을 하였다. 이를테면 그는 인사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안색을 살펴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2. 꿈과 해석 (40:5-8)

하루는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음을 보고 요셉은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꿈을 꾸었으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하였다. 바로의 궁전에는 전문적으로 해몽하는 자가 있었지만(41:8), 그들은 해몽가들에게서 격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꿈이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던 그들은 심한 근심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고 대답하였다. 전문적인 해몽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는 이어서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하면서 자기가 직접 해몽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따라서 꿈을 해석할 수 있음을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였다. 이후에 바로의 앞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임을 겸손히 밝힌다(참조. 41:16).

3.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그 해석, 요셉의 부탁 (40:9-15)

1)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그 해석 (40:9-13)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한 꿈의 내용은, 세 개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포도송이가 익어 그것을 바로의 잔에 짜서 드렸다는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에서는 ‘셋’이라는 숫자가 강조된다. 가지도 세 개이고 또한 ‘바로’와 ‘잔’이라는 말도 각각 세 번씩 나온다(11절).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그가 3일 후에 복권될 것을 이야기하였다. 세 가지라고 했지만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이것은 3일을 가리킬지 아니면 3개월이나 혹은 3년일지를 알 수 없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다. 그는 꿈에 나타난 가지나 싹, 꽃, 포도송이 등에 대하여 풍유적인 해석으로 여러 의미를 붙이지도 않고, 다만 그 꿈이 가리키는 사건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

였다.

2) 요셉의 부탁 (40:14-15)

요셉은 자기의 해석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장차 바로의 앞에서 다시 봉사하게 될 때에는 자기의 억울한 처지를 생각하고 구해 줄 것을 청하였다. 우리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건져 내어 달라고 말한 데서 그의 마음의 고통을 알 수 있다.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억울한 일이 있었다. 첫째는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고, 둘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사정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고, 다만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는 사실과 이 애굽에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고 자기 사정을 요약해서 말했다.

4. 떡 굶는 관원장의 꿈과 해석 (40:16-19)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이 좋게 나오는 것을 보고서, 떡 굶는 관원장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였다.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한 것부터가 자신의 고소에 대한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떡 굶는 관원장은 요셉의 유리한 해석을 보고서 비로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였다.

떡 굶는 관원장은 자기가 머리에 바구니를 삼층으로 얹고서 음식을 운반하였는데, 맨 위에는 바로를 위해 구워서 만든 각종 음식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를 위한 음식이었는데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새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어 버렸던 것이다.

떡 굶는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떡 굶는 관원장이 3일 후에 죽고 그의 시체는 나무에 달려서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그대로 전하였다. 요셉은 심심풀이로 해몽을 한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비록 그 해석이 그 사람에게에는 두려운 내용이라든가 요셉은 바로보다도 더 높은 권위, 즉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관원장이라는 높은 지위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5. 꿈대로 이루어짐 (40:20-23)

요셉의 이야기대로 3일 후에 열린 바로의 생일잔치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으며, 떡 굶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나무에 달려서 새들의 먹이가 되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매우 신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요셉의 부탁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채 바로의 궁전에서 새롭게 시작된 자기 생활에 곧장 빠져들었다. 무죄한 상태에서 옥에 갇히는 것이 얼마나 큰 좌절이고 두려운 일인지를 잘 아는 그로서는 요셉의 처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 2년 동안에 요셉은 또 다른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위하여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꿈에 나타나신 것이다.

묵상과 실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함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할 것을 부탁하였지만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은 소식이 들 것인지를 기다렸겠지만 그는 만 2년 동안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 기간에 요셉은 또 다른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꿈을 이루는 방식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직접 꿈에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이후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2년 동안도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는 관원장의 꿈들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여전히 감옥의 다

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이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진실이지만 그것의 성취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지만 여전히 옥에 갇혀 있는 이 기간이 요셉에게는 연단의 기간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을 시편 105:18-19에서는 ‘**여호와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고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큰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좌절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를 더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면서 연단을 받았다.

요셉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증거를 형들에 대한 태도에서 알 수 있다. 요셉이 형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러한 경험이 있기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있다. 전에는 자신이 다른 형제 위에 높이 될 것을 이야기하였다가 형제들의 시기를 받았다. 족장이 된다는 것은 섬김을 받는 지위가 아니라 섬기는 일일 것인데, 그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네 명의 어머니가 있는 복잡한 집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태도가 부족하였었다. 애굽에서, 특히 감옥에서의 생활을 거친 다음에 형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더 성숙한 모습이 있다. 자기를 쉽게 나타내지 않고 형들의 형편을 정확히 파악하며 또한 그 단계에 맞게 대처하는 것을 본다. 그는 또한 형들이 자기에게 오자 그것은 그들을 애굽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분명히 판단을 내렸다(45:7-8; 50:20). 이러한 것이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요셉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도록 이끄신다(히 5:14). 하나님의 인도는 이 점에서 우리의 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40장 익힘 문제

1. 요셉이 갇힌 시위대장의 옥에 애굽 왕에게 베풀한 두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이 관원장들은 무엇을 하던 자들이었습니까? (2점)
2. 시위대장은 바르의 두 관원장의 시종 드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4점)
3. 요셉은 관원장들에게 그들의 꿈에 대한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까? (8점)
4. 두 관원장의 꿈에 나온 포도나무의 세 가지와 흰 떡 세 광주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요셉이 해석하였습니까? (12, 18점)
5.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숙 말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점)
6.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사흘 뒤에 전직을 회복하여 바르에게 시종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21점)
7. 숙 말은 관원장은 석방된 후에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23점)